

SRT^m

생각을 디자인하는 비즈니스 트래블러 매거진



오늘 주

'오늘'이라는 선물

052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무지개빛 하루

060 대전, 디자인, 핫스팟

067 여행의 9가지 행복한 순간

080 국내외 여행 스페셜 에디션



VOL. 109

2025

12



대전, 디자인, 핫스팟

디자인은 삶을 이롭게 하는 예술적, 실용적 가치다.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디자인 가치를 주제로 시민과 디자이너가 함께 찾아낸 감각적 공간, '대전디자인핫스팟' 15곳을 소개한다. 사진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 문화 확산 프로젝트 '대전디자인핫스팟'은 대전 곳곳의 공간과 그 공간을 이루는 사람들에 관한 디자인 가치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이다. 시민과 방문객이 도시 속 숨겨진 디자인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핫스팟'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주목받는 장소를 뜻하지 않는다. 도시 곳곳에 점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과 장소 그리고 디자인적 태도들을 연결하고, 대전이라는 도시가 지닌 창의성과 일상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열정이 모인 공간을 의미한다. 2025년에는 시민과 디자이너가 함께 제안한 15곳이 핫스팟으로 새롭게 선정되어, 지난해 선정된 35곳과 더해 총 50개의 디자인 핫스팟이 완성됐다. 각기 다른 시선으로 지역성과 창의성을 실천하는 이들 공간은 대전 사람들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디자인의 힘을 보여준다. 자, 이제 도시의 디자인이 품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아래 QR코드를 통해 지난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35곳과, 올해 새롭게 선정된 15곳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홈페이지



스토리북

INSPERATION 영감의 공간 | 뜻밖의 틈새에서 기분 좋은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장소들

더 프렐류드 샵

각종 문구류와 생활 소품을 선보이는 편집숍. 매장에 들어서면 수많은 지우개가 가지런히 정렬된 아기자기한 전시 테이블이 가장 먼저 손님들을 맞이한다. 사랑스럽고 개성 넘치는 이 문구류들은 도대체 전부 어디서 온 걸까? 일상을 채울 문구용품을 찾았다면 이곳으로.

대전 중구 중앙로129번길 30 1층
12:00~19:00(월~금), 11:00~20:00(토~일)



고양이, 토끼, 홍학, 돌고래... 세상 모든 모양의 지우개!



숨피크

모던하고 정갈한 식기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그릇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공간이다. 가게 한편에 작업실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을 엿보는 것으로도 아름다운 물건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즐겁게 상상해볼 수 있다. 천천히 시선을 사로잡는 담백한 아름다움에 비해 제품 가격이 꽤 착하다.

대전 중구 중앙로112번길 37 2층 오른쪽 하얀 문
12:00~19:30(월~토), 12:00~18:00(일요일)

기도와 댄스는 통하는 것이 있다!

처치앤댄스홀

'처치앤댄스홀'이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다. 평소에는 고상한 음악과 커피 향기가 흐르는 카페로, 어느 특별한 저녁에는 개성 있는 음악 공연이 열려 관객과 창작자가 함께 어울리는 감각적인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바이닐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이곳에서는 비정기적으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이 열린다. 커피와 음악을 사랑한다면 안 가볼 수 없는 곳.

대전 중구 대흥로139번길 38
11:30~22:00, 월요일 휴무



렛츠 부키우기!

부키

이곳은 카페다. 단도직입적으로 카페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도저히 카페라고는 볼 수 없는 이곳 풍경들 때문이다. 브랜드 디렉터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이곳은 아프리카 무드의 공예품과 스테인리스 원목 구조물이 어우러져 토속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갤러리나 편집숍을 방불케 한다.

대전 서구 문정로112번길 54 1층
12:00~22:00(마지막 주문 21:30)

홍익커피바

커피와 바(bar)라는 개념이 만난 커피 전문 바. 바에 앉아 거꾸로 매달린 섬세한 모양의 유리 잔들, 신기한 모양의 커피머신과 로스터리 도구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테이블 아래에는 이곳의 마스코트인 강아지 '요지'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다. 이곳 커피바의 이름은 '홍익(弘益)'. 커피로도 세상을 충분히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요지'의 집은 대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최애'로 등극했다. 대전 서구 탄방로 78 1층 12:00~23:00(화, 목, 금, 토), 12:00~21:00(수요일), 13:00~19:00(일요일), 월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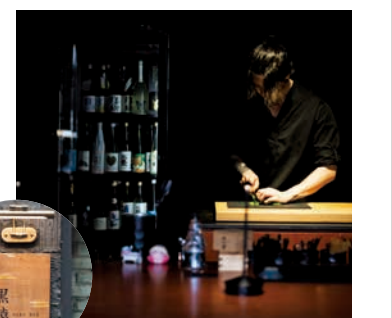


요지, 안녕?

사케바 쿠로자루

새롭고 낯선 경험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대전 사람들에게 '바'라는 형태는 일상에서 얻는 영감의 통로가 분명하다. 일본식 청주 사케를 모던한 감성으로 소개하는 '사케바 쿠로자루'. 종류도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케를 취향에 따라 추천해 준다. 바 한가운데서 메뉴를 준비하는 주인장의 모습은 마치 행위예술 같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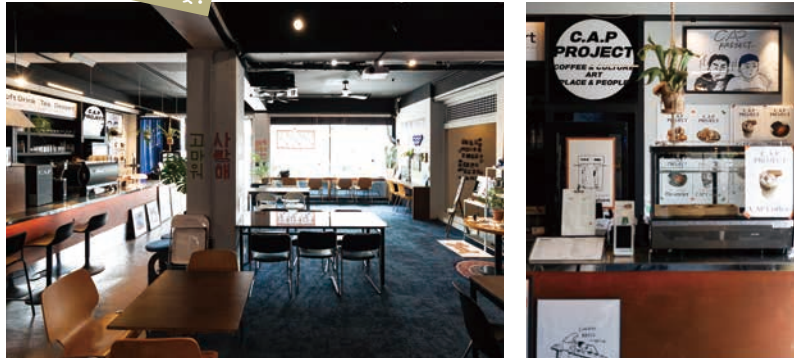
대전 유성구 대학로163번길 43 1층
19:00~03:00, (마지막 주문 1:30)



EXPERIENCE **경험의 공간** | 경험은 성장의 씨앗. 씨앗을 뿌리고 새로움을 수확하는 장소들

HISTORY **시간의 공간** |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기억하는, 자연을 품은 공간들

여기 좀 '캠'인듯?



캡프로젝트

'캡프로젝트(C.A.P Project)'라는 이름은 커피와 문화(Coffee&Culture), 예술(Art), 사람과 장소(People&Place)의 앞 글자를 담아 만들었다. 작명 재치가 돋보이는 이곳은 평소에는 커피를 즐기는 카페지만, 때마다 독서 모임, 보드게임 소모임,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지역 음악인들에게는 공연과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지트로도 활용되는 고마운 곳. 자체적으로 매거진을 발간하면서 지역 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다.

☎ 대전 대덕구 중리로53번길 42 ☎ 12:00~21:00, 화요일 휴무

다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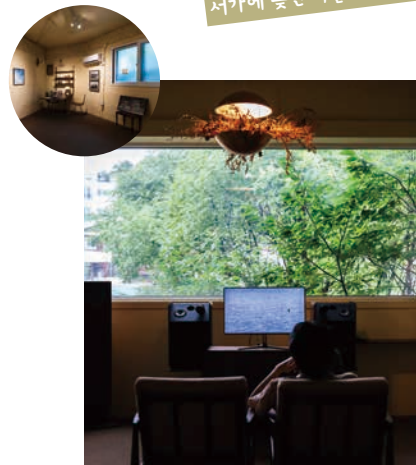
다양한 서적과 독립출판물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굿즈와 로컬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고 판매하는 독립서점이다. 1층에는 카페가 있어 책을 펼치고 대화를 나누는 애독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서점이라는 공간에서는 어떤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민한 공간! ☎ 대전 중구 중교로73번길 6 1층, 2층 ☎ 12:00~20:00



서가에 꽂힌 책들만 봐도 지체의 생물에 다다른 기분!

NOTO

'노토라' 불리는 이곳은, 감각적인 전시로 시민들에게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소중한 공간이다. 한쪽에서는 '노네임프레스'의 멋진 그래픽디자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둘러보자. 아름답고 전위적인 디자인 작품을 해석하는 데 반나절의 시간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단 상시 개방된 곳이 아니라 전시가 있는 경우 문을 여니, 필히 미리 확인하고 둘러볼 것. ☎ 대전 중구 대종로521번길 32-1 1층 ☎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 시간 상이, 인스타그램 공지 참고



비호소

평소에는 주로 카페와 와인바로 운영되며, 전시와 공연을 위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지역 주민과의 협업으로 완성되어 지역성과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복합문화공간. 무언가를 호소하지 않고도 충분히 충족되는 다양한 삶의 감각을 이곳에서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대전 중구 충무로 40 지하층, 1층, 3층 ☎ 11:00~24:00(마지막 주문 23:30), 행사가 있는 날은 카페 및 와인바 휴무



KAIST 미술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캠퍼스 내에 자리한 미술관이다. 1층 원도우 갤러리에서는 외부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래서 해가 진 캠퍼스에서 불이 켜진 건물 창을 통해 작품을 바라보는 색다른 감상을 유도한다. 2층은 개방형 수장고와 미디어홀로,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경계를 느슨하게 허물어 다채로운 예술적 체험이 가능하다. 이곳 미술관의 섬세하게 설계된 공간과 놀라운 작품 컬렉션을 통해, 과학과 예술이 멀지 않음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E9-1 ☎ 10:00~17:00(월~금), 토, 일 정기휴무



숲멍~ 디지털디톡스~

대전창작센터

작고 예스러운 건축물인 '대전창작센터'는 현재 대전시립미술관 전시관으로 운영되지만, 원래는 1958년에 세워진 농수산 물품질관리원이었던 독특한 이력을 지닌다. 센터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하고, 공연, 워크숍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문화적 의미를 부여해 사용하고 가꾸는 모습 자체가 큰 울림을 준다.

☎ 대전 중구 대종로 470 ☎ 10:00~18:00(휴게시간 12:00~13:00), 월요일 휴무



치유의숲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의 흐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숲속만 한 곳이 없다. 일상의 번잡함을 뒤로 하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싶다면 대전 '치유의숲'으로 가자. 이곳 치유센터에는 수업 마사지나, 음향진동테라피 등을 진행하는 치유실, 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운동치유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가·명상실 등을 운영해 몸과 정신을 자연 치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물론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다. ☎ 대전 중구 운남로37번길 386

☎ 9:00~18:00, 월요일 휴무



꿈돌이와 함께 산책해요!



한밭수목원

도시에서도 접근성이 높아 시민들의 일상 쉼터가 된 '한밭수목원'은 대전을 찾은 여행자들도 빼놓지 않고 들르는 명소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조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식재를 찾아보고, 자연과 인공 구조물의 조화가 자아내는 디자인적 영감을 얻기도 하며, 동시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도시 속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 ☎ 5:00~21:00, 월요일 휴무, 절기마다 운영 시간 상이

보죽집

1929년에 지어진 건물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 건축물 중 하나다. 정식 명칭은 '대전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족'. 근대 건축사적 가치가 높아 보존되고 있으며, 여행길 동선에 넣어 가볍게 둘러보면 동서양이 절충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살펴보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 대전 중구 문창로 119-15

